다락방 모임 리더 해설지 (9/6 주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창 14:1-24)

1. 아브람의 조카 롯에게 어떤 위기가 닥칩니까?(11-12절) 그때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14-16절)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 **롯은 모든 재산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를 만납니다.** 북방의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하여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이때, 소돔에 살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2) **아브람은 롯을 구하기 위해 주저 없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북방 왕들의 군대를 추격하여 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찾아옵니다. 평소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피스메이커 아브람이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탁월한 전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람이 용사로 일어난 동기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유대감이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이고도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라고 발뺌했지만, 아브람은 용맹히 대적들과 싸우며 형제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DNA를 가졌습니다.

나눔

내가 지금 외면하지 않고 지키고 책임져야 할 사람/공동체는 누구입니까?
그 책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입니까?

2. 아브람의 318명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14절)
달아나는 소돔/고모라 왕과, 빼앗는 북방 왕들 사이에서 아브람이 왜 돋보입니까?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 **318명의 용사는 아브람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고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람의 집에서 약속의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자라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람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르면서 형제에 대한 책임, 나그네를 향한 환대, 적대적인 이방 땅에서의 담대한 신앙, 실패한 이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등을 철저히 배웠을 것입니다.
(2) **이들은 '작은 아브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람의 신앙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고 삶으로 습득하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318명이 모이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과 실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자신을 훈련하고 세워야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용사들로 기를 수 있습니다.
(3) **아브람은 왕으로 불리지 않지만 '지키고 책임지는' 진짜 왕 같은 존재입니다.** 본문에는 "왕"이라는 표현이 28번이나 나오지만, 아브람은 단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진짜 왕 같은 존재는 아브람입니다. 본문의 왕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노략하거나 백성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아브람은 "형제를 지키고 책임지며" "빼앗긴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왕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명의 나그네요 순례자였던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 수많은 왕들 사이에서 가장 왕 같은 존재로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나눔

가정과 일터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배우게 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키고 책임지는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더 훈련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아브람을 맞이하고 축복한 멜기세덱은 어떤 왕입니까?(18-20절)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아브람은 소돔 왕의 제안을 어떻게 거절합니까?(22-24절)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멜기+체데크)"은 '의의 왕' 또는 '내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고, 그가 다스리는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을 떡과 포도주로 맞이하여 축복하면서, 전쟁터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아브람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아브람도 모든 것의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 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2) **아브람은 소돔 왕의 재물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말하지만, 아브람은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에게는 전리품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 재물을 기꺼이 버립니다.

(3) **아브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의(체데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과 돈으로 얽히며 '아브람이 내 덕에 부자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열강의 왕들을 물리친 외적 승리보다 더 대단한 것은 세상 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선택한 내적 승리입니다. 아브람은 승리 후에도, 의와 평화의 왕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 구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눔 **물질이나 유익, 세상의 소리 때문에 믿음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먼저 선택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 아브람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14절, 20절)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 **아브람의 승리는 평소에 길러 온 믿음의 실력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아브람은 원래 전쟁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형제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물러서지 않고 싸워 승리합니다. 그 비결은 오랜 세월 믿음으로 선택하고,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행동하는 법을 반복해서 몸으로 익히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 **궁극적으로 아브람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터에서는 아브람과 그의 용사들만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람 역시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드리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3)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의를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며,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서 의를 선택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꿰뚫는 믿음의 원리를 몸에 익힌 사람은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아브람과 318명의 용사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력을 기르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전방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전방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더 훈련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지금부터 길러야 할 믿음의 습관을 결단해 봅시다.